“무오 법정사 항일운동 ‘김석윤 배후설’은 역사왜곡”

봉려관불교문화硏 학술세미나서
연구원장 혜달 스님 비판 · 주장

김석윤, 부인 4명 둔 ‘보천교도’
제주불교 항일운동 주역 탈바꿈
김석윤–법정사 항일 연계 근거無
근대 제주불교 출가 순서도 바꿔
“제주불교 · 항일 주역 김석윤 차지
봉려관 · 도월 등 생애 업적은 매몰”

제주=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1월 10일 열린 봉려관불교문화연구원 ‘근대 제주불교역사 그 진실을 찾다 V’ 학술세미나에서 연구원장 혜달 스님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이성수 동국대 겸임교수(불교신문 기자)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이석환 동국대 불교학술원 학술연구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허남춘 제주대 국문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종합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제주 3대 독립운동 중 하나인 ‘무오 법정사 항일운동’은 1918년 10월 제주 법정사 스님들과 주민들이 주도한 제주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무장 항일운동으로, 김연일 스님 등 400여 명은 집단으로 무장해 2일 동안 조직적으로 일제에 항거했다.

최근 학계에서는 무오 법정사 항일운동에 김석윤(1877~1949)이 인적·사상적 토대를 제공한 핵심적 동력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근대 제주불교사를 바로잡기 위한 연구를 이어 가고 있는 봉려관불교문화연구원장 혜달 스님은 ‘무오 법정사 항일운동 김석윤 배후설’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혜달 스님은 1월 19일 제주교육박물관 뮤지엄 극장에서 열린 ‘근대 제주불교역사 그 진실을 찾다 V’ 학술세미나에서 발표한 ‘무오 법정사 항일항쟁운동의 왜곡상 고찰-김석윤 배후설을 반박하며’에서 “2006년경부터 한금순을 통해 제기된 무오 법정사 항일운동 김석윤 배후설은 역사 왜곡”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혜달 스님에 따르면 한금순은 자신의 연구를 통해 “김석윤이 근대 초기 제주불교 항일의식을 고취시키고 관음사에 항일인사를 집결시키며 법정사 항일운동의 사상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 전제로는 김석윤-강창규-방동화의 출가 인연, 김석윤이 관음사 승려 생활 중 1909년 제주의병에 참여 등을 한금순은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혜달 스님은 김석윤은 출가한 승려가 아닌 ‘보천교도’임을 분명히 했다. 김석윤의 동생인 김석익(1885~1956)이 쓴 ‘망형석성도인행록(亡兄石惺道人行錄)’에는 김석윤이 첫째 부인에게서 1남 3녀를 출산하는 등 4명의 부인에게서 총 8명의 자식을 두었다. 또한 보천교 중앙본소가 발행한 〈보광〉 창간호에는 김석윤을 ‘전의사장 김종화(典儀司長 金鐘華)’로 기록하고 있는데, 김종화는 김석윤의 이명(異名)이다.

혜달 스님은 “김석윤이 1907년 이후 불교 제도권에서 사미계를 수계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었고 그의 불교 수행 및 포교활동 정황도 없었다. 그의 승려 흔적은 동시대 기록물, 동생의 저술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며 “조선 불교 수계제도를 준용하면 김석윤이 1894년 출가, 관음사에서 승려생활을 하며 1909년 제주의병에 참여했다는 주장은 억설(臆說)이며 1949년 사망할 때까지 승려였다는 주장 역시 궤설”이라고 지적했다.

배후설 전제 중 하나인 김석윤-강창규-방동화의 출가 인연에 대해서는 “강창규, 방동화의 ‘이력서’, 김석윤의 ‘승적부’ 기록을 교차 검증 없이 사실로 인정한 결과”라고 봤다.

혜달 스님은 “강창규, 김석윤, 방동화와 관련한 일제 사법기관 문서와 가족상황, 구술 등을 종합했을 때 이들은 1909년 제주의병, 1918년 법정사 항일운동 당시에 불교 제도권 승려가 아닌 일반인”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김석윤 외에도 강창규 역시 1890년대 초반부터 부인과 딸 2명이 있었고 1900년 아들이 출생했으며 사미계 기록은 없다. 방동화의 출가는 혜관·일조 스님이 구술을 통해 ‘석방 이후 출가’를 증언하고 있어 운동 당시에는 ‘방 처사’였다는 게 혜달 스님의 설명이다.

혜달 스님은 “김석윤과 법정사 항일운동 핵심 주모자들 간 관계는 모두 허구”라며 “법정사 항일운동 주모자 중 김연일, 강민수, 정구용만 기록상 승려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혜달 스님은 이 같은 주장들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근대 제주불교 승려들의 출가 순서마저 ‘강창규-김석윤-봉려관’으로 규정하기에 이르렀음을 지적하며 “이는 명백한 왜곡”이라고 꼬집었다.

스님은 “회명이 작성한 ‘관음사개금원문’, 오이화의 ‘한라산관음사조사전창립취지서’, 박한영의 ‘영주기행’ 등 9건의 문건에 따르면 1702년 이형상 목사의 사찰 훼철, 승려 축출 이후 제주도에 불교를 처음 펼친 승려는 봉려관이었고 최초 활동지는 관음사였다”면서 “근대 제주불교 승려의 출가 순서는 ‘봉려관-안도월-오이화’ 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혜달 스님은 “한금순의 연구로 근대 제주불교 역사는 물론 제주 항일운동 역사마저 주요한 자리는 김석윤이 차지했다”면서 “그 결과 근대 제주불교의 시작을 열고 중흥을 이끈 봉려관 스님과 관음사 5대 주지 도월 스님의 생애와 업적은 오히려 감소·매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객관적 근거에 입각한 이견은 건강한 연구이지만 명확한 근거 없이 역사의 근간까지 재편한 행위는 명백한 ‘역사 왜곡’”이라고 질책했다.

이와 함께 학술세미나에서는 근대 제주불교사와 제주불교 연구에 대한 연구논문들이 발표됐다. 이성수 동국대 겸임교수(불교신문 기자)는 ‘근대 제주불교와 만암·묵담 스님의 역할’을 통해 근대 제주불교의 부흥 과정에서 만암 스님과 묵담 스님이 수행한 역할을 규명하고, 일제강점기 육지 사찰의 제주 포교 활동이 제주불교 발전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이 겸임교수에 따르면 만암 스님은 1916년부터 1943년까지 20여 년간 백양사를 이끌면서 전국 60여 곳에 포교소를 설치했다. 이 중 26곳의 포교소를 제주도에 설치하며 백양사를 31본산 중 가장 많은 제주 포교소를 둔 본산이 됐다.

묵담 스님은 제주에서 수차례 보살계 법회를 거행하고 체계적인 교화사업을 전개했다. 묵담 스님의 보살계 법회는 제주 지역 신도들에게 보살행을 실천하는 불자로서 정체성을 확립시켰으며 제주불교 대중화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

이 겸임교수는 “만암 스님이 포교소 설치와 승려 파견, 재정 지원을 통해 제주불교의 외형적 기반을 조성했다면 묵담 스님은 보살계 법회와 교화 활동을 통해 제주 신도들의 내면적 신심을 고취하고 불교를 대중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제주불교의 연구현황과 과제-제주 관음사, 법정사 창건을 중심으로’를 발표한 이석환 동국대 불교학술원 학술연구교수는 근대 제주불교 중흥과 관련된 주요 연구주제인 관음사와 법정사 항일운동 관련 연구를 조망했다.

그러면서 이 연구교수는 △선행연구 검토와 논거로서 인용 자료의 명확한 제시 △단순 추측이나 유추 아닌 근거를 통한 논증과 검증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자료 수집을 바탕으로 한 실증적 연구를 근대 제주불교사 연구 과제로 제시했다.

이 연구교수는 “제주라는 한정된 지역의 향토사적 자료와 구술자료, 문화사적인 접근 방식을 통한 자료의 축적을 통해 민중의 삶과 함께 한 제주불교만의 지역적 특징을 고려해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제주불교의 특징을 지키고 가꿔 나가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연구방법을 통한 논증을 통해 먼저 제주불교의 본래 모습을 알아보는 연구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 뒤에는 허남춘 제주대 국문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종합토론에는 세 명의 발표자와 논평자인 동국대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 전임연구원 법진 스님, 탁효정 순천대 학술연구교수, 양혜원 서울대 규장각 객원연구원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스님의 마지막을
여법하게 모시는 장례 서비스

대한민국 最高의 불교장례서비스
‘연화회’와 ‘현대불교신문’이 함께 합니다.



불교를 아는 언론포교사 ‘현대불교신문’
- 행장 및 업적 정리, 보도자료 생산, 부고
- 추모 리플렛, 호외 발행, 언론사 응대 등
- 영결·다비식의 각종 실무 지원

믿을 수 있는 언론포교사가 전담합니다.
취득한 정보는 절대 유출되지 않습니다.

상담문의 010-4727-6065